



Original Article

A Study on Perceived Entrapment, Anger and Depression in Adolescent Women

Cheon, Suk-Hee¹⁾

1)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청소년의 지각된 속박감, 분노 및 우울의 관계

천 숙 희¹⁾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Abstract

Purpose: The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entrapment to anger and depression in adolescent women. **Method:** Seven hundred sixty-five adolescent women were recruited from two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Korea for a descriptive study. The instruments used were The Entrapment Scale for perceived entrapment, Spielberger's 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for state anger and trait anger, and The 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for depression. **Results:** The score of perceived entrapmen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tate anger, trait anger and depression.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depression in adolescent women were perceived entrapment, state anger and trait anger explaining 47.6% of the variance in depressio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perceived entrapment is an important predictor for depression.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depression in adolescent women, it is necessary to design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helps with coping and reduces perceived entrapment.

Key words : Adolescent, Women, Entrapment, Anger, Depression

서 론

청소년기는 성장발달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인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과도기이며, 외적 스트레스가 많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시기인 동시에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시기이다(Lee, 2003).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제도와 조기교육, 학원수강과 같이 끊임없이 동분서주케 하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 그리고 출세와 실패를 판가름하고 있는 학벌주의 속에서 학업문제, 장래와 진학 문제 및 학교생활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우울이나 분노와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일 도시 전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학생 34.5%, 여학생 47.5%에서 우울 증상이 있었고 그 중 절반정도는 정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Cho et al., 2001). 특히 학업문제, 장래와 진학 문제 및 학교생활문제

투고일: 2008. 5. 26 1차심사완료일: 2008. 6. 4 2차심사완료일: 2008. 11. 24 최종심사완료일: 2008. 12. 9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eon, Suk-Hee(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660 Woosan-dong, Wonju-si, Kangwon-do 220-702, Korea

Tel: 82-33-738-7625 E-mail: shchn@sangji.ac.kr

등 이 시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청소년 우울은 발생 가능성이 높다(Cho, 2005). 분노 역시 청소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서, 청소년의 분노는 부정적 자아개념, 공격성, 충동성 및 당위적 사고 등의 내적 요인과 부모의 비밀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 학교의 엄격한 규칙, 교사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 비난하고 따돌리는 친구들의 태도 등 부모, 교사 및 친구관계에서 비롯된 외적 요인 등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적 긴장이라 할 수 있다(Kim, 2003).

그동안 청소년에서 우울이나 분노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비롯한 대응방식,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같은 다양한 변인들이 제시되어 왔다(Park, 2003; Cho, 2005). 그러나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였다 하더라도 정신건강문제가 발생하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이를 잘 수용하고 극복하는 청소년이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적응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개인적 특성과 같은 요인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Brown, Bifulco, & Andrew, 1990). 실제 청소년 연구에서 대응 방식,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 요인이 우울을 보다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Choi, 2000). 따라서 청소년에서 발생한 심리적 부적응을 설명함에 있어서 부적응에 매개 또는 중재하는 개인적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 자신이 지속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지각하는 주관적인 통제감은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Gamble, 1994; Thurber & Weisz, 1997), 만약 지속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강한 동기가 존재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각하게 된다면 내적 심리적 불안정을 초래하여 결국 우울이나 분노와 같은 정신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속되어 온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동기는 충분하나 결국 극복할 수 없다고 느끼는 주관적 지각은 이후 발생한 부적응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Dixon (1998) 및 Gilbert와 Allan(1998)은 우울 발생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결국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부정적 정서인 속박감이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간이 속박감을 지각하게 되는 상황에 대하여 Gilbert, Allan, Brough, Melley와 Miles(2002)는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이나 위협적인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 전략으로, 투쟁-도피(fight-flight) 반응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비효율적이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 못하거나 도피할 방법마저 차단되는 경우 속박감을 지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인간은 지속되어온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매우 동기화되어 있지만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얽매어 있다고 느낄 때 속박감을 지각하게 되

며 이후 우울 정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속박감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평가하였을 때 자신의 외부세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탈출 동기가 유발되면서 지각하게 된 속박감을 외적 속박감, 내적 감정과 사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탈출 동기가 유발되어 지각하게 된 속박감을 내적 속박감이라 하였다(Gilbert & Allan, 1998).

이와 같이 우울의 발생을 설명함에 있어서 속박감과 우울의 관련성이 제기된 이후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Gilbert & Allan, 1998; Gilbert et al., 2002; Gilbert; Martin, Gilbert, Mcewan, & Irons, 2006; Willner & Goldstein, 2001). 이를테면, Gilbert와 Allan(1998)은 우울 집단이 정상인보다 속박감 수준이 더 높고 속박감과 우울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면서 속박감과 우울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초기 우울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속박감 관련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정상인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우울뿐만 아니라 분노(Gilbert & Gilbert, 2003)나 불안(Gilbert et al., 2002; Kendler, Hettema, Butera, Gardner, & Prescott, 2006)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스트레스 생활사건 때문에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상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부적응 행위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속박감에 관한 국내 연구는 Cheon(2006)이 지각된 속박감 개념 및 청소년의 지각된 속박감 유형을 제시하면서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대학 지향적 사회적 가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현실,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제약, 성취지향적인 자신의 성향에 비해 이에 부응하지 못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지나친 의식, 취약한 가정환경 및 교육환경 및 권위적이고 비수용적인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속박감을 지각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속박감은 이후 심리적 부적응 발생 가능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속박감을 파악하고 분노 및 우울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우울과 같은 심인성 건강문제의 발생률이 청소년기에 서부터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높게 나타나므로(Burt & Stein, 2002) 성차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문헌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인 자아평가와 같은 부정적 인지형식을 갖는 경향이 있고 대인관계 민감성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더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처럼(Hankin & Abramson, 2001; Boyce & Mason, 1993) 1991), 속박감 역시 부정적 지각을 내포하고 있어 청소년에서 지각된 속박감 수준이 청소년 남자 보다 높을 수 있다. 또한 우울의 위장된 정서로 간주되고 있는 분노는 우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Fava & Rosenbaum, 1999), 10~19세 중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분노수준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어(Wilson et al., 2005)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각된 속박감과 분노 및 우울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각된 속박감과 우울 및 분노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분노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재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지각된 속박감에 관한 연구 가능성을 살펴보고 학문적 관심과 연구의 활성화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지각된 속박감, 분노 및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 청소년의 지각된 속박감, 분노 및 우울의 관계를 파악한다.
-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지각된 속박감, 분노 및 우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서 본 연구 목적에 동의하고 참여를 수락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문계고 학생과 실업계고 학생 간에 측정변수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제한하되 인문계열 중 남녀 공학 교와 여자고등학교를 각각 편의 추출하여 모든 재학생에게 질문지를 의뢰한 후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765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포함하였다.

3. 용어 정의

1) 지각된 속박감(Perceived Entrapment)

지각된 속박감(Perceived Entrapment)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매우 동기화되어 있지만 벗어날 수 없다고 느

끼는 것을 말한다(Brown, Bifulco, & Harris, 1987). 본 연구에서 지각된 속박감은 청소년기 여성이 학업, 가정, 사회 및 자신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매여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지각으로서 Gilbert와 Allan(1998)이 개발한 The Entrapment Scale를 번역한 것을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분노

분노는 분노상황에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근육긴장 및 자율신경계의 활성화를 수반하면서 경증의 초조함이나 흥분에서부터 격렬한 분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도의 주관적 감정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상태로(Spielberger, 1996), Chon, Hahn, Lee와 Spielberger(1997)의 한국판 상태-기질 분노표현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3) 우울

우울은 개인이 지각하는 저하된 기분상태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감, 무기력감 및 무가치감을 의미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정서를 식별하기 위해 개발한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Chon과 Lee(1992)가 한국 상황에 맞도록 표준화한 한국판 CES-D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4. 연구 도구

1) 지각된 속박감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지각된 속박감은 Gilbert와 Allan(1998)이 자신의 현재 정신상태에 초점을 두고 감정과 판단을 평가하도록 개발한 The Entrapment Scale를 번역하여 이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외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탈출동기와 그로 인한 속박감을 평가하도록 구성된 외적 속박감 10문항과 내적 감정이나 사고에 의해 유발된 탈출동기와 그로 인한 속박감을 평가하도록 구성된 내적 속박감 6문항 총 16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속박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 alpha는 .95였으며, 영역별로 외적 속박감은 .89였고 내적 속박감은 .91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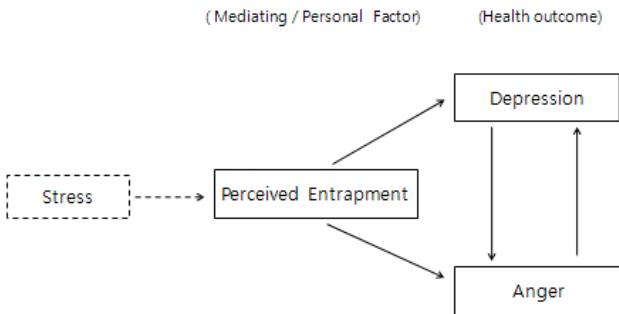
2) 분노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분노는 Chon, Hahn, Lee와 Spielberger(1997)의 한국판 상태-기질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에서 상태분노 10문항, 기질분노 10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전혀 아니다' 1점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 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취득가능 점수의 범위는 각각 10점에서 40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 alpha는 상태분노 .92, 기질 분노 .83이었다.

3) 우울 측정

본 연구에서 우울은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Chon과 Lee(1992)가 표준화한 한국판 CES-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1주일 동안의 우울 경험을 측정하는 20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드물게(1일 이하) 0점, 때때로(1-2일) 1점, 상당히(3-4일) 2점, 대부분(5-7일) 3점으로 점수 범위는 0-6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 alpha는 .88이었다.



<Figure 1> Research frame

5.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 2개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에게 본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뒤 학교의 승인을 얻어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재학 중인 여학생에게 본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응답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6년 8월 16일부터 9월 8일이었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5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지각된 속박감, 분노 및 우울의 기술통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속박감, 분노 및 우울

의 차이 분석은 ANOVA와 t-test를 이용하였다.

- 지각된 속박감, 분노 및 우울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우울을 설명하는 요인의 파악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1학년이 374명, 2학년이 391명이었고,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7.8%이고, 부모 월수입이 200~300만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7%, 300~400만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6%이었다. 평균 초경 연령은 12.7세이었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765)

	Category	n(%)	M(SD)
Grade	First	374(48.9)	
	Second	391(51.1)	
Religion	Yes	442(57.8)	
	No	315(41.2)	
family Income	Missing	8(1.0)	
	100below	11(1.4)	
	100-200 below	42(5.5)	
	200-300 below	82(10.7)	
	300-400 below	81(10.6)	
	400-500 below	32(4.2)	
	500 above	52(6.8)	
	others	423(55.3)	
Father occupation	Missing	42(5.5)	
	Yes	731(95.5)	
	No	3(0.4)	
Mother occupation	Missing	31(4.1)	
	Yes	364(47.6)	
	No	360(47.1)	
Menarche(yrs)	Missing	41(5.4)	
	18.5 below	158(20.7)	12.7(1.18)
	18.5-25 below	441(57.6)	20.1(2.61)
BMI	25-30 below	24(3.1)	
	30 above	3(0.4)	
	Missing	139(18.2)	
Alcohol	Yes	92(12.1)	
	No	654(85.5)	
	Missing	19(2.5)	
Smoking	Yes	20(2.6)	
	No	733(95.8)	
	Missing	12(1.6)	
Drug	Yes	9(1.2)	
	No	740(96.7)	
	Missing	16(2.1)	

BMI(Body Mass Index)는 평균 20.1로 18.5~25미만이 57.6%로 가장 많았고 18.5미만이 20.7%, 25~30미만이 3.1%, 30이상 0.4%이었다. 흡연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6%이었고, 음주 경험자는 12.1%, 약물복용 경험자는 1.2%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제 연구변수의 특성

대상자의 지각된 속박감 평균점수는 41.0점(점수범위 16~80)이었고, 하위요인인 외적 속박감은 26.9점(10~50), 내적 속박감은 16.3점(6~30)이었다. 상태분노 평균점수는 12.5점(10~40), 기질분노는 19.4점(10~40)이었으며, 우울 평균점수는 38.3점(0~60)이었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research variables in adolescent women (N=765)

Items	M(SD)
External Entrapment	
I am in a situation I feel trapped in	2.73 (1.25)
I am a strong desire to escape from things in my life	3.16 (1.28)
I am in a relationship I cant's get out of	2.38 (1.14)
I often have the feeling that I would just life to run away	3.03 (1.28)
I feel powerless to change things	2.84 (1.22)
I feel trapped by my obligations	2.72 (1.23)
I can see no way out of my current situation	2.61 (1.21)
I would like to get away from other more powerful people in my life	2.37 (1.13)
I have strong desire to get away and stay away from where I am now	2.87 (1.31)
I feel trapped by other people	2.22 (1.10)
Sum of items	41.0 (14.4)
Internal Entrapment	
I want to get away from myself	2.29 (1.24)
I feel powerless to change myself	2.19 (1.14)
I would like to escape from my thoughts and feelings	2.33 (1.16)
I feel trapped inside myself	2.24 (1.19)
I would like to get away from who I am and start again	2.96 (1.40)
I feel I'm in a deep hole I can't get out of	2.14 (1.16)
Sum of items	16.3 (7.12)
State anger	12.5 (4.62)
Trait anger	19.4 (5.15)
Depression	38.3 (9.58)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속박감, 분노 및 우울의 차이 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연구변수의 차이 분석은 <Table 3>

과 같다.

대상자의 내적 속박감은 부모 월수입($F=2.29, p=.03$), 음주 유무($t=3.93, p=.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ukey HSD 사후검정에서 월수입 100만원미만 및 400~500만원미만 집단과 다른 집단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적 속박감은 음주 유무($t=2.63, p=.00$), 흡연 유무($t=2.23, p=.02$), 약물사용 유무($t=2.33, p=.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울은 부모의 월수입($F=2.79, p=.01$), 음주 유무($t=4.41, p=.00$), 흡연 유무($t=2.34, p=.01$), 약물사용 유무($t=3.11, p=.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ukey HSD 사후검정에서 부모 월수입이 100만원미만이라고 응답한 집단과 다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질분노는 초경 연령을 10~12세와 13~17세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56, p=.01$), 또한 음주 유무 ($t=4.15, p=.00$), 흡연 유무($t=2.21, p=.03$), 약물사용 유무($t=2.21, p=.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연구변수의 차이 분석에서 학년별, 종교 유무, 부모 직업 유무 및 BMI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지각된 속박감과 분노 및 우울의 상관성 분석

제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연구변수간에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외적 속박감은 상태분노($r=.36$), 기질분노($r=.26$) 및 우울($r=.6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내적 속박감은 상태분노($r=.30$), 기질분노($r=.19$) 및 우울($r=.60$)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상태분노와 우울($r=.38$), 기질분노와 우울($r=.26$), 상태분노와 기질분노($r=.26$)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5.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외적 속박감, 내적 속박감, 상태분노 및 기질분노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상관성 분석에서 네 설명변수들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Table 4> 회귀분석을 하기 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429에서 .903이고,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113에서 2.33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든 설명변수에서 Regression Coefficient가 $p<.05$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네 변수가 우울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47.6%이었다. 우울에 대한 설명

<Table 3> Perceived entrapment, anger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 adolescent women (N=765)

	Perceived entrapment				Anger				Depression	
	External	t or F	Internal	t or F	State anger	t or F	Trait anger	t or F	M(SD)	t or F
	M(SD)	(p)	M(SD)	(p)	M(SD)	(p)	M(SD)	(p)		(p)
Grade										
First	26.5(9.78)	-1.06	16.1(7.14)	-0.66	12.6(4.72)	0.52	19.2(4.98)	-0.91	17.8(9.69)	-1.45
Second	27.2(8.89)		16.5(7.11)		12.4(4.5)		19.6(5.30)		18.8(9.46)	
Religion										
Yes	26.9(9.43)	0.28	16.5(7.25)	1.01	12.4(4.75)	-0.66	19.5(5.20)	0.57	18.3(9.89)	-0.09
No	26.8(9.24)		16.0(6.99)		12.6(4.47)		19.3(5.10)		18.3(9.22)	
Family Income										
100below	33.8(6.95)	1.93	22.7(5.15)	2.29*	14.7(8.53)	1.53	20.8(3.86)	1.52	26.0(10.7)	2.79**
100-200 below	27.9(9.53)		16.4(7.01)		13.1(5.88)		19.1(4.65)		19.5(9.40)	
200-300 below	28.4(8.80)		17.2(7.72)		13.4(5.07)		20.0(4.78)		19.6(9.21)	
300-400 below	27.1(9.44)		16.7(6.66)		11.9(3.43)		19.3(4.92)		19.3(8.53)	
400-500 below	28.7(12.0)		18.1(9.41)		13.0(4.55)		20.7(6.07)		21.0(10.6)	
500 above	27.1(8.86)		16.0(6.83)		12.7(4.75)		20.9(4.98)		19.4(11.7)	
others	26.3(9.12)		15.9(6.97)		12.3(4.42)		19.2(5.30)		17.4(9.47)	
Father occupation										
Yes	26.8(9.36)	0.90	16.3(7.16)	0.97	12.5(4.64)	0.71	19.4(5.14)	-0.45	18.4(9.63)	-0.05
No	30.3(6.65)		20.3(0.57)		14.6(5.03)		18.6(3.05)		18.3(5.13)	
Mother occupation										
Yes	27.4(9.40)	-1.58	16.6(7.31)	-1.09	12.8(5.06)	1.67	19.5(5.35)	0.27	18.8(9.83)	-1.05
No	26.3(9.41)		16.0(7.11)		12.2(4.15)		19.4(4.98)		18.0(9.57)	
Menarche(yrs)										
10-12 yrs	26.8(9.8)	-0.55	13.9(6.14)	-1.04	12.5(4.99)	-0.09	20.1(5.19)	2.56**	18.5(9.97)	0.42
13-17 yrs	27.0(9.13)		14.3(6.09)		12.5(4.44)		19.0(5.20)		18.3(9.38)	
BMI										
18.5 below	26.8(9.21)	0.61	16.4(6.61)	0.85	12.6(4.22)	0.56	19.5(4.94)	0.60	18.2(9.06)	0.88
18.5-25 below	26.8(9.55)		16.2(7.32)		12.3(4.37)		19.4(5.13)		18.2(9.54)	
25-30 below	29.2(10.9)		18.6(8.25)		12.8(4.94)		19.7(4.65)		21.1(10.9)	
30 above	24.0(10.0)		16.3(8.14)		10.0(0.00)		15.6(4.93)		14.6(9.46)	
Alcohol										
Yes	29.3(11.3)	2.63**	16.4(6.89)	3.93**	13.1(5.27)	1.69	21.5(5.63)	4.15**	22.5(11.0)	4.41**
No	26.5(9.08)		13.7(5.93)		12.4(4.50)		19.1(5.01)		17.8(9.29)	
Smoking										
Yes	31.4(10.9)	2.20*	15.9(7.66)	1.37	13.5(5.08)	0.99	21.8(5.05)	2.11*	23.0(12.0)	2.34**
No	26.7(9.28)		14.0(6.04)		12.4(4.54)		19.3(5.14)		18.2(9.53)	
Drug										
Yes	34.1(8.50)	2.33*	16.6(7.53)	1.25	15.0(10.1)	1.57	23.2(4.23)	2.21*	28.2(9.93)	3.11**
No	26.8(9.34)		14.1(6.08)		12.5(4.56)		19.3(5.17)		18.2(9.56)	

* p<.05 ** p<.01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research variables in adolescent women (N=765)

	External entrapment	Internal entrapment	State anger	Trait anger	Depression
External entrapment	1.00	0.49***	0.36***	0.26***	0.65***
Internal entrapment		1.00	0.30***	0.19***	0.60***
State anger			1.00	0.26***	0.38***
Trait anger				1.00	0.26***
Depression					1.00

*** p< .001

력이 가장 높은 변수는 외적 속박감으로 41.8%의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내적 속박감과 더불어 지각된 속박감은 44.8%

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Predictors of depression in adolescent women

(N=765)

Predictor variables	Standardized β	R^2	R^2 Change	p	Co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External entrapment	.394	.418	.418	0.000	.429	2.333
Internal entrapment	.245	.448	.030	0.000	.454	2.200
State anger	.146	.471	.023	0.000	.839	1.192
Trait anger	.076	.476	.005	0.006	.898	1.113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각된 속박감과 분노 및 우울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지각된 속박감과 분노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지각된 속박감은 국내 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아 국내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를 하는 것이 어렵지만 청소년이 아닌 다른 대상자를 포함하여 외국 선행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자가 보고한 지각된 속박감 평균 점수는 41.0점이고 하위요인인 외적 속박감은 26.9점, 내적 속박감은 16.3점으로 선행 연구결과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Gilbert와 Allan(1998)이 속박감 측정도구를 개발할 당시 대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적 속박감은 10.1점, 내적 속박감은 4.6점이었고, Allan과 Gilbert(2002)의 연구에서 대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외적속박감은 9.7점이었던 결과에 비해 본 연구 대상자의 속박감 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지각된 속박감을 측정한 Willner와 Goldstein(2001)의 연구에서 외적 속박감은 11.9점, 내적 속박감은 5.6점으로 보고 된 바 본 연구에서의 지각된 속박감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Gilbert와 Allan(1998)이 성인 우울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적 속박감은 25.2점, 내적 속박감은 18.6점으로 보고 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우울환자와 유사한 수준의 속박감을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에서 속박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Cheon(2006)이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 지상주의 교육현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지나친 집착, 그리고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권위적인 태도로 말미암은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지각된 속박감과 분노 및 우울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지각된 속박감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Gilbert와 Allan(199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CES-D로 측정한 우울과 외적 속박감($r = .65$, $p < .001$), 우울과 내적 속박감($r =$

$.64$, $p < .001$)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하였고, 우울환자에 서도 우울과 외적 속박감($r = .54$, $p < .001$), 내적 속박감($r = .62$, $p < .001$)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Willner와 Goldstein(2001)은 장애아동 어머니에서 BDI로 측정한 우울과 외적 속박감($r = .77$, $p < .001$), 우울과 내적 속박감($r = .58$, $p < .001$)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Allan과 Gilbert (2002)는 남녀 대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외적 속박감과 우울($r = .58$, $p < .001$)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지각된 속박감과 분노의 관계에 대하여 Allan과 Gilbert(200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속박감과 분노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외적 속박감과 기질분노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여($r = .35$, $p < .001$) 분노의 증가와 속박감의 지각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아직 속박감과 분노의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지만 Baumeister(1990)는 속박감을 지각하게 되는 사람이 더 불안정해진다고 하였고 Dixon(1998)은 속박감을 지각하는 상황에서 공격성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음을 제시한 바 있어 속박감과 분노간에 분명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노의 증가된 경험이 속박감을 지각하게 하는 것인지, 속박감 지각으로 인해 분노가 증가되는 것인지 속박감과 분노 간에 인과성(causality)이 분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분노와 우울의 관련성이 보고 되어 왔으나(Cheon, 2007) 이들 간의 관계에서 속박감이 어떻게 관련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Gilbert와 Gilbert (2003)에 따르면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스트레스 상황에서 속박감을 지각하게 되어 분노 정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분노를 표현할 수 없다면 이로 인해 우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속박감, 분노, 우울의 인과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고 외적 속박감, 내적 속박감, 기질분노 및 상태분노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변수가 우울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이 있었으며, 총 47.6%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각된 속박감의 설명력은 44.8%로 분노 변수보다 우울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높아 지각된 속박감이 우울의 주요 예측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울에 대한 지각된 속박감의 예측 정도에 대해 Sturman과 Mongrain(2005)은 대학생 835명중 우울증 과거력이 있는 대학생 14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내적 속박감이 우울의 심각성에 대해 약 50%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Martin 등(2006)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귀 분석 결과 속박감이 우울을 예측하는 변량의 39.5%를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Willner와 Goldstein(2001)은 장애아동 어머니의 우울에 대한 예측요인을 확인한 연구에서 속박감을 단독으로 투입시키지 않아 직접적 비교가 어렵지만 속박감과 패배감 두 변수가 우울에 대한 25%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는 물론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각된 속박감이 우울의 주요 예측 요인임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대처방식 등이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최근 Park, Koo와 Jang(2007)은 자존감, 적대감 및 절망감과 건강상태 지각, 부모의 알코올 중독 및 신체학대 경험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하여 우울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이들 변인이 우울의 52%를 설명하고 이 중 자아존중감이 36%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Cho(2005)은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에 대한 학교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에서 스트레스의 설명력은 16.3%, 대처방식의 설명력은 6.4%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지각된 속박감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은 44.8%로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자아존중감이나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의 설명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울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지각된 속박감을 고려하여 이를 검증하는 반복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우울 발생의 관련 요인인 스트레스가 우울을 설명하는 변량이 4~15%정도로 우울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는가 하면(Choi, 2000) 본 연구와 같이 지각된 속박감을 우울의 예측 요인으로 보고한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의 사이에서 매개 또는 중재변인으로서 지각된 속박감의 역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속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서 속박감을 지각하게 된다면 우울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지각된 속박감과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적 역할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시도될 필요성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지각된 속박감과 분노 및 우울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지각된 속박감, 분노 및 우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속박감과 분노가 확인되었고 이 중 지각된 속박감의 설명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이나 분노와 같은 심리 정서적 부적응의 관련 요인으로 지각된 속박감이라는 개념을 연구에 포함함으로써 우울과 분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 연구로 평가된다. 특히 우울의 예측요인으로서 지각된 속박감이 보여준 설명력을 통해서 볼 때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을 설명함에 있어서 지각된 속박감의 역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속박감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특성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부적응 발생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와, 분노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예방하거나 중재하기 위해서 지각된 속박감을 포함하는 중재 전략을 개발하는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도되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성별에 따른 지각된 속박감의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이 시기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 연구들은 청소년기 이외에도 우울, 불안 및 분노와 같은 심리적 부적응의 위험성이 있는 다양한 대상자에서 지각된 속박감과 건강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Allan, S., & Gilbert, P. (2002). Anger and anger expression in relation to perceptions of social rank, entrapment and depressive symptoms. *Pers Individ dif*, 32, 551-565.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 Rev*, 97, 90-133.
- Boyce, P., & Mason, C. (1996). An overview of depression-prone personality traits and the role of interpersonal sensitivity.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0(1), 90-103.
- Brown, G. W., Bifulco, A., & Andrew, B. (1990). Self-esteem and depression. Aetiological issues.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25, 235-243.
- Brown, G. W., Bifulco, A., & Harris, T. O. (1987). Life events, vulnerability and onset of depression: Some refinement. *Br J Psychiatry*, 150, 30-42.

- Burt, K., & Stein, K. (2002). Epidemiology of depression throughout the female lifestyle. *J Clin Psychiatry*, 63, 9-15.
- Cheon, S. H. (2006). *The perceived entrapment types and health of adolesce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Cheon, S. H. (2007). A Study on Eating Behavior, Depression, Anger, Anger Expression and BAS/BIS in Adolescent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13(4), 246-255.
- Cho, M. Y. (2005).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stressors from school on depress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Cho, S. J., Jeon, H. J., Kim, M. J., Kim, J. K., Kim, U. S., Lyoo, I. K., & Cho, M. J. (2001). Prevalence and correlated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the adolescents in an urban area in Kore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0(4), 627-639.
- Choi, M. R. (2000).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Chon, K. K., Hahn, D. W., Lee, C. H., & Spielberger, C. D. (1997).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inventory ; Anger and blood pressure. *Korean J Health Psychol*, 2(1), 60-78.
- Chon, K. K., & Lee, M. G. (1992).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 Clin Psychol*, 11(1), 65-76.
- Dixon, A. K. (1998). Ethological strategies for defence in animals and humans : Their role in some psychiatric disorder. *Br J Med Psychol*, 71, 417-445.
- Fava, M., & Rosenbaum, J. F. (1999). Anger attacks in patients with depression. *J Clin Psychiatry*, 60(suppl 15), 21-24.
- Gamble, W. C. (1994). Perceptions of controllability and other stressor event characteristics as determinants of coping among you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 Youth Adolesc*, 26(1), 65-84.
- Gilbert, P., & Allan, S. (1998).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arrested flight) in depression: An exploration of an evolutionary view, *Psychol Med*, 28(3), 585-598.
- Gilbert, P., Allan, S., Brough, S., Melley, S., & Miles, J. N. V. (2002). Relationship of anhedonia and anxiety to social rank, defeat, and entrapment. *J Affect Disord*, 71, 141-151.
- Gilbert, P., & Gilbert, J. (2003). Entrapment and arrested fight and flight in depression: An exploration using focus groups. *Psychol Psychother*, 76, 173-188.
- Hankin, B. L., & Abramson, L. Y. (2001). Development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 elaborated cognitive vulnerability-transactional stress theory. *Psychology Bulletin*, 127, 773-796.
- Kim, K. S. (2003). Th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anger coping strategies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 Edu. Psy*, 17(3), 393-410.
- Lee, K. J. (2003).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igh risk group in adolescent suici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Martin, Y., Gilbert, P., McEwan, K., & Irons, C. (2006). The relation of entrapment, shame, guilt to depression, in carers of people with dementia, *Aging Ment Health*, 10(2), 101-106.
- Park, H. S., Koo, H. Y., & Jang, E. H. (2007). The study on predictors of depression for Korean female adolescents. *J Korean Acad Nurs*, 37(5), 715-723.
- Park, K. H. (2003). *A study of stress factors and coping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Seoul.
- Spielberger, C. D. (1996).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Scale*. Port Huron, Michigan: Sigma assessments system.
- Sturman, E. D., & Mongrain, M. (2005). Self-criticism and major depress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Br J Clin Psychol*, 44, 505-519.
- Thurber, C. A., & Weisz, J. R. (1997). You can try or you can just give up: The impact of perceived control and coping style on childhood homesickness. *Dev Psychol*, 33(3), 508-517.
- Willner, P., & Goldstein, R. C. (2001). Mediation of depression by perceptions of defeat and entrapment in high-stress mother. *Br J Med Psychol*, 74, 473-485.
- Wilson, G. S., Pritchard, M. E., & Revalee, B. (2005). Individual difference in adolescent health symptoms; the effects of gender and coping. *J Adolesc*, 28, 369-379.